농림축산식품부	**설명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9월 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코로나19대책반 과 장 윤광일(044-201-1161), 사무관 노승호(1162) / 제공일: 9월 6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 노력

○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증빙 애로 등을 고려,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노력

○ 9월 6일 **파이낸셜뉴스 <농가 매출 줄고도 지원 못받았는데 '영농 바우처' 예산은 70% 남아돈다>**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□ **'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' 예산 집행률**이 **30%**를 밑돌며 4차 재난지원금 중 농가지원을 위한 일부 **예산 집행**에 **빈틈**

□ 농민들은 **개별 업종**의 **특성**을 **반영하지 않은 매출평가 기준**을 내세워 매출감소 피해를 입고도 **지원대상**에서 **배제**되었다고 토로

○ 화훼는 대부분 원격배송으로 납품하지만 당초 매출 증명원으로 송장, 택배거래서 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,

○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은 공동으로 재배·출하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'농가 단위'로 피해를 파악해 매출감소 증명에 애로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□ 올해 4차 재난지원금으로 **소규모 농가**를 지원하는 '**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**'과, **코로나19 피해 분야 농가**를 지원하는 '**코로나 극복 영농지원**' 2가지 바우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.

○ '**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**'은 **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'20년 소농 직불금**을 수령한 **농가**에 **30만원**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지원대상의 93.3%(401,132호)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.

○ '**코로나 극복 영농지원**'은 외식업 영업제한 등 **방역조치**로 인해 매출 감소 **피해**를 입은 **5개 분야*** 농가에 **100만원**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* 화훼,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, 겨울수박, 말, 농촌체험휴양마을

□ '**코로나 극복 영농지원**'의 경우 다른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하였으나, **매출 증빙**이 **쉽지 않은 농업 분야**의 특성을 **고려하여 신청에 어려움**이 **없도록 노력**하였습니다.

○ 사업 시행 초기 2차례에 걸쳐 **지원요건**을 **완화**(4.26, 5.14)하였고, 신청을 놓치는 농가가 없도록 **신청기간**도 **연장***하였습니다.

* 신청기간 : (당초) ~4.30 → (1차 연장) ~5.14 → (2차 연장) ~8.13

- 지원요건 완화 사례로는, ① 화훼의 경우 원격거래라는 특성 상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택배거래 시 발생하는 송장, 택배거래서 등도 확인서로 인정하였습니다.

- ② 친환경농산물은 신청인이 소속된 생산자 단체의 회원농가의 확인 서명을 일일이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, 대표와 사무국장 서명만 받고 회원농가 서명은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③ 말 농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, 마사회에 등록된 거래는 별도의 매매 증빙 제출을 생략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.

□ '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'는 현재 지급 중으로, 10월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